

주요 내용

WTO 각료 선언문 초안과 시사점

주요 내용 및 특징

- (1차 초안) 농산물의 대폭 관세 인하와 보조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기타 규범 제정 분야(투자, 경쟁, 정부조달협정 등)는 의제 대상임을 언급하는 데 그침.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반덤핑 분야가 제외되었고, 임·수산물에 관세 인하의 대상으로 포함됨을 시사함
- (수정안) 쟁점을 병기하여 수정안을 작성함.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국의 주장(농업의 다기능성 감안)과 수출국의 주장(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을 보강. 반덤핑 분야가 포함되었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함

시사점

-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반덤핑 분야의 포함,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고려 등 한국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됨. 환경 의제가 언급되지 않은 반면 다수의 규범 의제가 언급된 것은 유리하나, 농업, 임·수산물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됨
- (이해 관련국간 협력의 중요성) 초안 수정 과정에서 보듯이, 이해 관련국간 협력을 통해 의제 및 협상 방향을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음. '반덤핑'의 규정 개정을 위한 EU·일본과의 협력, 농업 및 임·수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함

WTO 각료 선언문 초안과 시사점

김 용 복

경과

- WTO는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발표했으나, 각국의 반발이 심하여 2차 초안을 다시 작성 발표함
 - 12월 초 시애틀 WTO 제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선언문은 2000년 1월부터 시작될 뉴라운드 협상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함
 - 10월 7일 WTO 음추모(Mchumo) 일반이사회 의장은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 회원국에 배포함
 - 그러나 초안에 대해 한국, 일본, EU 등의 반발이 강력해 10월 20일 2차 초안을 다시 마련함

초안의 주요 내용

-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협상 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언급된 의제로는 기존 협정 이행,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긴급무역구제조치, 보조금, 국영 무역, 지역무역협정,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임
 - 협상 의제 중 기존 협정 이행,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기술하였고, 특히 농업 분야와 관련 대폭의 관세 인하와 보조금 삭감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언급함
 - 반면 기타 규범 제정 분야(지역 무역 협정, 투자, 경쟁, 정부 조달 협정 등)는 협상 대상으로서만 명기되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협상 방향이 언급되지 않음
 -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반덤핑 분야는 '반덤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긴급무역구제조치⁹⁾라는 표현이 있을 뿐임

9) 긴급무역구제조치라는 표현은 상계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동안 미국이 반덤핑

-
- 임·수산물에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시장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
 - 환경,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의제로 언급하지 않음. 단지 총론에 완전 고용,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언급만이 있음

- 1차 초안에 대한 주요 국가의 반응

- 전반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기존 협정의 이행이 강조된 데 만족하고 있음
- 한국, EU, 일본 등은 초안이 주로 미국 및 농업 수출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농업의 자유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규범과 관련된 의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한국과 일본은 농업의 다기능성이 언급되지 않은 점, 임·수산물 분야가 별도 협상 대상으로 되지 않은 점, 반덤핑 분야가 누락된 점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함
- 반면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 14개국)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는 평가임. 그러나 미국은 경쟁, 투자 분야가 시기 상조이며, 케언즈그룹은 농업이 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2차 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병기하여 각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형태로 2차 초안을 작성함
-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국의 주장(농업의 다기능성, 비교역적 기능 감안)과 수출국의 주장(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을 보강함
- 반덤핑 분야를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 기존 반덤핑 협정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명기함
- 임·수산물의 별도 협상 주장(한국 및 일본)은 반영되지 않음
- 기타 투자, 경쟁정책 등 규범 제정 분야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보강함

을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장했던 개념임

< WTO 각료 선언문 초안 수정 내용 >

	1차 초안	2차 초안
언급된 의제	기존 협정 이행,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긴급무역구제조치, 보조금, 국영 무역, 지역무역협정,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농업 분야	대폭의 관세 인하 및 보조금 삭감	수출국 주장(공산품 수준 자유화)과 수입국 주장(농업의 다기능성, 비교역성 고려)를 병기
임·수산물의 관세 인하 포함 여부	‘비농산물 시장 접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포함을 시사	별도 협상 주장이 반영되지 않음
규범 의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협정, 지역 무역협정 등이 협상 대상으로만 간략하게 언급	관련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예, 투자 협정 : 대상 범위, 정의, 기본 원칙 등이 포함됨)
반덤핑	‘긴급무역구제 조치에 관해 협의한다’ 고만 언급	‘반덤핑’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정한다’고 언급

향후 협상 전망

- 향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협상은 2차 초안을 중심으로 상호 대립되는 의견을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그렇지만 2차 초안이 각국의 주장을 병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언급되어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도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의제 조정과 의제 내 협상 방향을 둘러싸고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시사점

- 초안의 수정으로 한국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으나, 몇몇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등 향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임

- 2차 초안에서는 반덤핑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협상 의제로 될 가능성이 생겼으며,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기로 하는 등 한국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었음
- 또한 우려하였던 환경 분야는 초안에서 의제로 언급되지 않음에 따라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됨
- 그리고 그 동안 한국이 주장하였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협정, 지역무역협정 등이 포함되는 등 유리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가 농업의 자유화에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됨
- 또한 ‘비농산물 시장접근’이라는 명칭이 사용됨에 따라 임·수산물이 관세 인하의 대상으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이들 분야에서의 수입 증대 및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해 관련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초안의 수정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해를 같이하는 당사국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을 경우 협상의 내용 및 방향이 수정될 수 있음
- 특히 ‘반덤핑’이 2차 초안에 포함되기까지는 EU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EU는 그 동안 의제로 다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적극 지지의 입장으로 선회함
- 그렇지만 미국 등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반덤핑’이 의제로 채택되고 실제로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개정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됨. 따라서 이해 관련국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임·수산물이 2차 초안에서도 별도 협상 대상으로 되지 못하여 피해가 예상되지만, 협상과정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임·수산물이 공산품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bkim@hri.co.kr ☎ 724-4032)